출가를 준비하자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도다./ 다시는 그대가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는 무너졌고,/ 집의 서까래는 흩어졌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갈애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게송으로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승리를 얻으시며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파순을 '집 짓는 자'라고 지칭하여,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속박된 자아를 타파하고,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여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 갖춰진 것들이 자신의 모습이며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어딘가를 향해 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무언가에 의지되어 형성되고, 추상적인 일상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할 때 그것을 가족,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을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出家'는 욕망이란 '집'의 해체
연말, 안주하려는 집서 나와라
속박서 벗어나 환희로운 삶 살길

마왕 파순은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이다. 욕망과 집착으로 이루어졌고, 무언가와 타협시켜 적당히 끝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파순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라며 안주하게 된다.

불교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을 모르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를 추구한다면 언제나 괴로움(苦) 밖에 없는 것이다. 무아이기에 우리는 어떤 한 존재나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집 짓는 자'라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집'이라는 속박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구성하는 골재와 서까래도 결국은 흩어져 그 형태조차 남겨지지 않기에 무엇에도 집착하고 영원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가(出家)'가 '가출'과 다른 것은,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닌 집을 해체하는 것이다. 기존의 삶이나 일반적 관념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그 선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출가적 삶'이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을 작년과 같이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시간 속에는 참다운 보냄과 또 다른 맞이함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연말과 새해가 새롭고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주하려는 그 자리에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출가를 준비하자. 아무 목적 없이 보내던 그저 그런 하루의 줄을 자르고, 낡고 색 바랜 일상의 옷을 벗어던져,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환희롭고 빛나는 오늘 하루를 살자.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던 속박을 떠나,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그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출가를 하자.

추운 겨울, 산새에게 헌식 공양을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찌~익!' 시끄러운 새로 유명한 직박구리가 모이대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나 보다. 베란다 바깥에 물그릇과 먹이통을 갖춘 새 모이대를 만들어놓은 지 내년이면 꼭 10년이 된다. 5월에 이사를 왔는데 새벽에 어마어마한 새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살면서 그토록 많은 새소리를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파트 바로 옆이 숲인 데다 때는 봄이었다. 1년 중 새들의 지저귐이 절정에 달하는 봄하고도 새벽이었다. 오죽하면 '트와일라잇 송'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저렇게 새가 많다면 모이를 먹으러 올지도 모르겠다는 호기심에 시작한 모이대는 이제 날마다 찾아오는 새들과 한 식구가 되었다. 다만 창을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오가는 식구다. 주로 참새가 찾아오는데 처음엔 좀 예쁜 새가 와주길 바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새가 점점 좋아졌다. 오래 보니 예쁘고 자세히 보니 사랑스러웠다. 관찰할수록 영리하고 멋진 새다.

야생에 사는 생명이니 당연히 먹이를 야생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데다 겨울에도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으니 겨울 가뭄은 봄 가뭄으로 이어지며 야생의 목숨은 물 부족마저 시달린다. 참새가 그 작은 부리로 목을 축이는 걸 지켜보면 많아야 다섯 모금이다. 그런데도 물그릇에 물이 주는 걸 보면 꽤 많은 새가 오간다는 걸 알 수 있다. 목마른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집 베란다가 쓰인다 생각하면 기쁘다.

겨울 봉암사 다룬 오래 전 다큐서
산새에 먹이 공양 모습 인상 깊어
불가 헌식 전통, 겨울 산새 베풀길

직박구리가 모이대에 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자연에서 먹을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모이대 당번을 제대로 서야 하는 계절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겨울은 야생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들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추위를 견뎌내려면 땅콩이나 들깨, 해바라기 씨 등 지방이 풍부한 먹이가 좋다. '헌식이란 불가에서 공양할 때 배고픈 중생 몫으로 따로 떠 놓았다가 베푸는 일을 말한다.'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읽다가 '헌식'이란 걸 알게 되었다. 어릴 적 나들이를 가면 어른들이 '고시레' 하며 주변으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던 그 모습 역시 헌식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다.

20년 전쯤에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다. 문경 봉암사가 배경이었는데 겨울이면 봉암사는 새들과 기꺼이 먹이를 나눴다. 한 스님이 기왓장에 곡식을 놔주면 곤줄박이며 박새 같은 산새들이 어떻게 알고 날마다 찾아와 먹고 갔다. 겨울 봉암사는 '새들의 어미가 되고 숲이 된다'는 내레이션이 감동적이었다. 대웅전 처마 밑에선 올빼미가 겨울을 나고 봉암사 주변 소나무 숲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까막딱다구리도 살고 있었다.

많은 산사가 새들의 어미가 되고 숲이길 빌어본다. 주변 생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추운 겨울 잣송이나 솔방울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거기에 견과류를 꽂아 동네 공원이며 가로수에 달아놓으면 겨우내 새들에게 요긴한 먹이가 될 것이며 따뜻한 보시가 될 것이다. 추운 겨울, 헌식의 전통을 이어봐도 좋겠다.

社 說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진을 기대한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선명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10월 26~27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도조직 임원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다가오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신도 1만여 명이 함께 하는 대규모 선명상 보급 행사가 내년에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45개의 조계종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가 선명상으로 국민 마음 평화를 도모하는 종단의 원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선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서울 안암동에 선명상센터 건립 불사가 본격화되는 등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종단 사업이 다각도로 전개될 것이어서 중앙신도회의 선명상대회는 더욱 기대를 모은다.

70돌을 맞는 중앙신도회는 제28대 집행부의 출범과 더불어 중앙운영위원회를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정 회장은 사찰 경내 어린이·청년 전용 공간을 확보해 접근성을 높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으로는 조직 정비부터 대외적으로 선명상 대중화, 젊은 세대 포교까지 전방위로 나서는 70돌 중앙신도회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창립 70년을 맞는 중앙신도회의 약진을 기대한다.

자살 유족 위로법회, 범불교적 확대를

한국사회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율은 지난해 24.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은 것은 '자살 유족'이다. 이들은 자신이 막지 못 했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났다는 일종의 책임감과 죄책감까지 더해져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다.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3~9배가량 높은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자살 유족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0월 30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돌봄과 치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마포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은 2017~2019년 3년 간 자살 유족 위로법회를 봉행했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에 따르면 명상 등이 이뤄진 법회를 통해 자살 유족들은 내면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았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90%에 달했다. 자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불교적인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위로법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전 국비구니회장)의 말씀은 되새길 만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하는 자살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진정한 자비행이다. 위로법회가 범불교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